"참 지혜로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운 인생"

(전도서 7:23-29)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 스스로를 객관화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 뿐만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스스로를 겸허하게 만드는 좋은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자신을 객관화 하기보다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내가 하는 행동 그리고 말투 등등 남을 별로 배려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전 흥행했던 '올드보이'의 영화 속의 주인공인 오대수가 무심코 던졌던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을 자살로 몰아놓고 또 한사람은 이것에 대해 복수심을 갖게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서도 가만히 보면 이런 유의 상처와 시험 때문에 교회를 떠나든지 또한 나와도 서로에 대해 마음이 닫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던진 말들이 마음에 쌓이고 결국 상처가 되어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객관화하는 지혜가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인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야 자신을 스스로 객관화 할 수 있는 지혜의 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 구절인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혜의 최고봉에 서 있는자가 참 지혜를 만나니 자신이 얼마나 이 부분에서 무지한 사람이였는가를 객관화하며 보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처음 두 단어의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혜의 단어는 **'훼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크마의 지혜는 해 아래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훼히의 지혜는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자체를 말을 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스스로 지혜(호크마)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지혜(훼히)를 만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성 어거스틴이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신이 그 꿈에서 어린아이가 조개껍질로 바다를 다 푸어서 메마르게 하려고 했던 것처 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지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저들은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부족한 자인가를 객관화하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늘의 지혜를 만났을때, 솔로몬은 자신이 그 지혜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처럼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다음 구절들을 통해 자신이 오히려 그 스스로의 지혜로 인해 수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누려 보았지만 자신이 가장 이기적이고 악하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자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악하고 선한 것인가? 스스로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해 아래 스스로 의롭고 선한 사람이 없음을 인정하는 객관화 할 수 있는 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분의 은혜로 그 분의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날마다 겸허하게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세우며 나아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표어

"한 영혼을 품어 열매 맺는 생명의 공동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8:12)

일반집회		교회학교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시	오전 예배부	주일 오전 10시
드림 워십	주일 오전 8시	영아부	주일 오후 12시
글로리 워십	주일 오전 10시	유아부	주일 오후 12시
블레싱 워십	주일 오후 12시	유치부	주일 오후 12시
청년예배	주일 오후 12시	초등부	주일 오후 12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시	중고등부	주일 오후 12시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러브미션부	주일 오후 12시
수요중보기도회	수요일 저녁 8시	새나라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유 아 부	최수진 사모 (917)526-1344	1 선 교 회	김성준 목사 (617)949-1118
유 치 부		2 선 교 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초 등 부	최주안 전도사 (646)662-0691	3 선 교 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중 고 등 부	손주영 전도사 (917)797-4237	4 선 교 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러 브 미 션	박명애 전도사 (718)737-1643	5,6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청 년 부	김성준 목사 (617)949-1118	히 스 패 닉	이효성 목사 (646)549-6043
영 어 회 중	폴 김 목사 (201)679-2924	네 팔	다니엘 바스넷 목사 (201)927-0220
행 정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몽 골	투글들 목사 (646)467-2675
양 육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다민족사역	양영란 전도사 (917)533-9511
새 가 족 부	최순성 목사(정) 박수진 전도사(부)	시니어사역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심 방 부	박수진 전도사 (646)642-9331		

단비 기독교TV (타임워너 케이블 채널1487)/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본방송)
토요일 오전 11시(재방송)

2024년 12월 15일

1부 예배 8:00am	2부 예배 10:00am	3부 예배 12:00pm
드림 워십 인도: 최순성 목사	글로리 워십 인도: 김성준 목사	블레싱 워십 인도: 최순성 목사

*경배와 찬양 Worship Song	두나미스 찬양팀	신앙고백	사도신경
*기원 Invocation	인도자	경배와 찬양	블레싱 찬양팀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제43번 "시편(Psalms) 99편"	기도	장상욱 집사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Creed'	공동체 소식	영상
찬송 Hymn	새120장(통120) "오 베들레헴 작은 골" 'O Little Town of Bethlehem'	성경봉독	갈 5:22-23/빌 4:4
기도 Prayer	홍성로 장로 (Elder Sung Ro Hong)	*봉헌	"나 무엇과도 주님을"
성경봉독 Scripture	요한1서(1 John) 4:10-21	설교	**"성령의 열매: 기쁨"** 최순성 목사
*봉헌 Offering	새213장(통348) "나의 생명 드리니" (1,4절) 'Take My Life, and Let It Be'	찬양	"나는 찬양하리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 Anthem	글로리아 찬양대 "기쁘다 구주 오셨네/천사들의 노래가"	축도	최순성 목사
설교 Preaching	**"우리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For Us and for Jesus" 김학진 목사		
찬송 Hymn	새304장(통404)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		
*축도 Benediction	김학진 목사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s			

(* 표는 가능하면 일어나심 / Stand if able)